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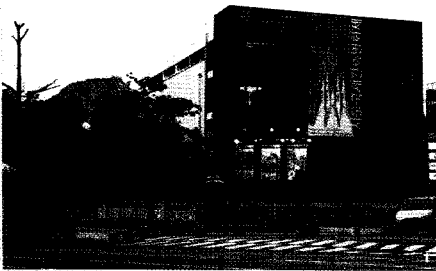
#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폐막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The 1st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이하 SIAFF)가 4일(11월 19일 ~ 22일)간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지난 22일 폐막했다.

'건축과 영화' 두 분야의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SIAFF의 객석점유율 69.2%, 이미 국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객석점유율 64%와 비교해보더라도 시작부터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상영 프로그램 중 2편('렘 콜하스 : 도전과 혁신', '노먼 포스터와 거킨 빌딩')이 서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의 요청으로 2주간 연장 상영돼 '건축사(The Architects)'라는 주제에 걸맞

게 '건축사'에 대한 홍보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9일에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김형수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이 영화배우 지진희 씨에게 감사패를, 또 영화배우 박시은 씨를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요 일간지와 연예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11월 19일 오후 7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SIAFF의 첫 걸음을 축하하기 위해 건축계와 영화계 내외인사들이 참석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교수/인하대 연극영화과)과 이성현 의원(한나라당)이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미로스페이스를 찾았으며, 유영식 감독(오감도



1. 상영관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 전경  
2. 개막식 사회자인 박시은 씨와 유영식 감독  
3. 김형수 SIAFF 집행위원장의 개막선언  
4. 축하중인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SIAFF대회장(대한건축사협회 회장)

5. 감사패를 받은 지진희 씨와 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위촉된 홍보대사인 박시은 씨  
6. 관객과의 대화중인 유영식 씨  
7. 관객과의 대화중인 성형호 건축사  
8. 관객과의 대화중인 김 권 대안, 안영순 감독

9. 관객과의 대화중인 주병도, 권문성 건축사  
10. 관객과의 대화중인 강광국 건축사, 유영식 감독  
11. 관객과의 대화에서 문의 중인 권각  
12. 폐막식에서 UCC영모전 수상자와 함께한 최영집 회장

연출), 정재은 감독(고양이를 부탁해 연출) 등 젊은 영화감독들이 참세 해 영화제를 빛냈다.

개막식 사회는 유영식 감독과 영화배우 박시은 씨가 진행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SIAFF 대회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건축과 영화의 만남을 통한 건축문화의 고양과 건축을 창조하는 작가인 건축사가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건축을 통하여 인간 삶의 의미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고무했다.

이어 최영집 회장은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지진희 씨와 박시은 씨에게 각각 감사패 전달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순서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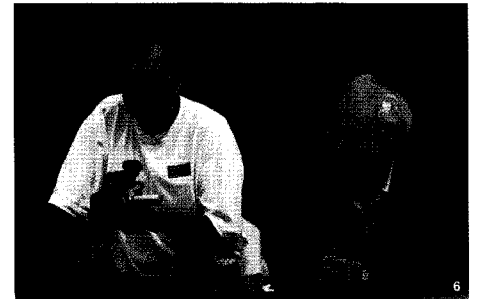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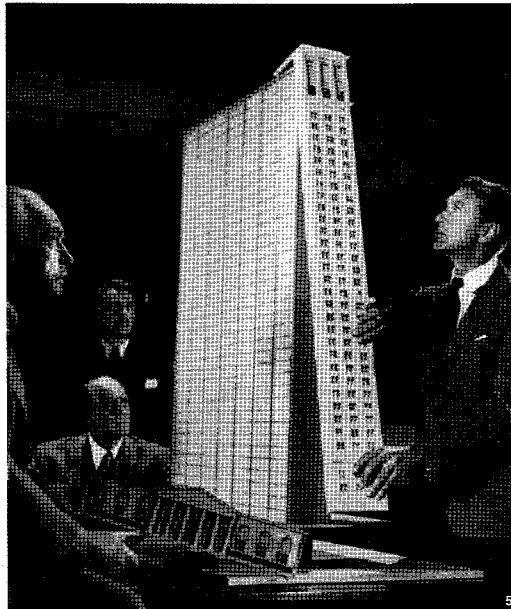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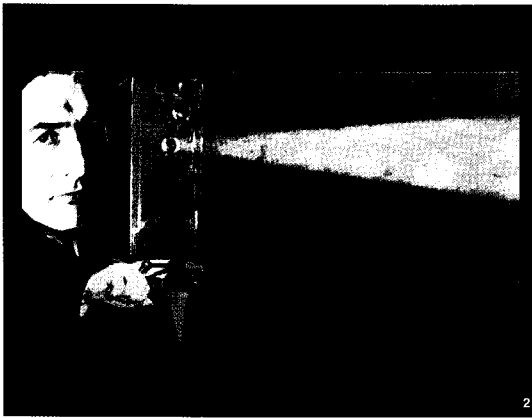
영화제조직위는 드라마에서 건축사로 열연한 지진희 씨를 '건축사'로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진희 씨는 최근 KBS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에서 무뚝뚝하면서 까칠한 '건축사 조재희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지진희 씨는 "건축사라는 직업을 잘 몰랐지만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힘들지만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했다. 아울러 최근 KBS드라마 '천주태후'에서 열연한 박시은 씨를 SIAFF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밖에도 상영직후 관객들과 함께하는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Host Architects' Forum)은 다 영화제와 차별성을 둔 프로그램이었다. 영화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화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SIAFF는 16회 상영기준으로 전체 1,920석의 좌석 중 1,330명의 관객을 동원해 69.2%의 높은 객석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상영관인 미로스페이스 측은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SIAFF 폐막 후에도 영화제 기간 동안 선보인 영화 중 2편(렘 콜하스 : 도전과 혁신, 노먼 포스터와 거킨 빌딩)을 2주간 연장 상영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건축사 회원들을 위해 상영작 중 '마천루', '램폴 하스 : 도전과 혁신', '노먼 포스터와 거킨 빌딩'을 11월 30일, 12월 2~3일(오후 5시)총 3회에 걸쳐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 1층에서 무료 상영했다.



1.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포스터  
2.렘 콜하스 도전과 혁신  
3.노먼 포스터와 거킨 빌딩

4.마이 아키텍트  
5.마천루  
6.프랭크 게리의 스케치

7.취화선